

무안군, 민선8기 출범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미래먹거리 발굴·생활 SOC 확충 등 역점사업 보고 “서남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무안 만들어 나갈 것”

김산 무안군수는 12일 민선8기 출범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으로 군정 책기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무안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상반기 추진성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보고된 주요 현안사업은 무안군 미래먹거리 발굴과 생활 SOC 확충 등 군정전반에 대한 역점사업들로 ▲비전2040 무안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응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임산·출산·양육 지원사업 ▲남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오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도리포 관광명소화 사업 ▲환경클린센터 공사 ▲백련지 수목원 조성사업 ▲남약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등이다.

김산 군수는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민선7기부터 시작된 무안군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민선8기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으며 “민선7기의 결과에 안



주하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민선8기 서남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무안을 만들어 나갈 것”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재활용품(폐전지, 종이팩) 모아 인센티브 지원”

영광군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군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폐전지, 종이팩 수거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전지 10개를 모으면 새 전지 2개로 교환해주고 종이팩(우유팩, 두유팩)을 모으면 화장지 3롤로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회수 취약품목인 폐전지와 우유팩을 보다 원활히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교환장소는 군청 도시환경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수거된 폐전지와 종이팩은 재활용품 처리업체로 반입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폐전지는 수은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로 매립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유팩도 분리배출만 잘하면 경제성 높은 재활용 가능 자원이다.

군 관계자는 “폐전지와 종이팩 등을 적절하게 회수하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군민의 건강과 소중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 350-5343)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 추가 접수

2020년 7월 1일 이전 도내 계속 거주자로 대상자 확대...연 20만원 포인트로 지급해 목포 등 전남에서 사용

목포시가 7월 한달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지난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21세 이상 28세 이하(1994~2001년도 출생자) 청년이다.

이번 추가 접수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거주 기준일을 공고일인 7월 1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청년에게 기회가 제공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에게는 10만원이 차액돼 지급되고, 상반기에 선정된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9월 중 체크카드로 발급되는데 지원금은 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되며 학원 수강,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전남에서 연내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270-3212),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신광면 새빛행복센터 착공식 성료

함평군이 11일 오전 ‘신광면 새빛행복센터 착공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새빛행복센터 착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윤영량 함평군의회 의장, 군의원, 이남울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 김석봉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2019년 실시계획 완료,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82억여 원을 투입,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새빛행복센터, 새빛행복홈, 경관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김광환기자

신안 홍도, 희귀조류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 확인

2019년 국내 처음 확인된 이래, 6번째 관찰

신안군은 섬 원주리 축제가 한창인 홍도에서 희귀조류인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 1개체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는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차이나반도, 말레이반도 등지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공원, 마을 주변, 농경지, 도심 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서식한다.

씨앗, 곤충, 양서류, 음식물 등 다양한 것을 먹는 잡식성으로 나무 구멍이나 인공 구조물에 둥지를 튼다. 전체적으로 갈색이며, 머리와 목은 검은색, 눈 뒤와 아래, 부리와 다리는 노란색이다.

섬 원주리 축제 개막일인 지난 8일 홍도 몽돌해변 일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 1개체가 확인되었다.

이 종은 2019년 7월 부산에서 국내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번 홍도에서 관찰이 국내 6번째 기록이자, 신안군 첫 기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제가 한창인 홍도에서 희귀조류의 자연환경을 가진 홍도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 농기계임대료 12월까지 50%감면 연장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 농기계 748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 기간은 변동 없이 3월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3,269농가에 3,958대, 약 6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 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